

국제통상론

제2주 국제통상정책의 발전과정



유 하상

국제통상 정책의 발전과정

역사적으로 볼 때 각국의 무역정책은 정치경제학적 여건에 의하여 커다란 영향을 받아 옴.

첫째, 모든 국가가 유치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시장 보호정책을 채택한 경향이 있다.

둘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정치, 경제적인 특정사건이나 여건과 관련되어 왔다. 예컨대

- 1) 신생국의 탄생은 예외 없이 보호무역과 연결되었다.(1870년대의 독일과 이탈리아의 민족국가 형성, 1차 대전 이후 유럽과 신생국의 탄생)
- 2) 국제적 디플레이션, 공황기에는 보호무역이 확산되었다.(1870년대, 1920년대, 1970년 이후)
- 3)전쟁과 기근이 지배하던 시기에도 보호무역이 수반되었다.

셋째, 경제적 우위에 있는 국가가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산업혁명 후 영국, 2차 대전 이후 미국)

양차 대전과 국제통상

1. 개관

- 산업혁명으로 가장 발달한 선진 자본국 영국은 대량생산된 상품에 대한 시장의 확보를 위하여 후진국에 대하여 자유무역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면직기 등의 기계류의 수출은 엄격하게 금지하여 산업혁명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 하였음
- 그러나 산업혁명의 물결이 서구제국과 미국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영국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고, 그 대신 서구의 선진 자본국들의 식민지를 확보 경쟁(시장분할)을 통한 제국주의가 시작되어 원료품과 공산품의 상호교환에 의한 종속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2차 대전까지 지속되었음
- 20세기 초 선진 자본국들의 식민지 확보 경쟁에 따른 갈등은 결국 1차 대전을 유발하였으며, 1차 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잡은 미국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1929년의 세계대공황은 각국의 치열한 무역, 외환전쟁으로 발전되어 극도의 보호주의로 회귀하였으며 이는 세계경제를 더욱 위축시켜 2차 대전으로 연결됨

1차대전후 국제질서의 변화

- 유럽열강의 약화 : 전쟁으로 경제력이 크게 손상되어 광대한 식민지와 자치령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약화되기 시작함
- 이 때 후진국도 점차로 내셔널리즘(민족주의, 국가주의; 독립)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정치, 경제적인 자주권을 획득하기 시작.
- 유럽열강은 승패국에 관계없이 모두 시장에 대한 상대적 경제력이 약화(대영제국의 체제는 영국연방의 체제로 개편)
- 사회주의의 탄생 : 러시아가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켜 자본주의시장에서 이탈함으로써 19세기까지 이 지구상에 유일한 자본주의체제가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양분되는 결과를 가져옴.

- 미국의 부상 : 미국은 유럽이 전쟁에 국력을 소모하고 있는 동안 참전하지 않고 생산력을 증강시키며 유럽에 무기와 식량을 공급하면서 경제력 향상.
- 전전의 채무국에서 일약 채권국으로 격상. 전후 유럽을 대신하여 공산품의 수출국, 국제금융의 중심지가 됨.
- 미국은 이후 축적된 자본을 해외에 투자하는 달러외교로써 세계 최고의 제국주의국가로 부상.
- 또한 베르사유체제에 따라 독일의 전후 처리문제 해결을 미국이 맡게 됨에 따라 유럽에 대한 미국의 발언권이 크게 강화됨.
- 유럽에서의 미국자본은 특히 독일의 전쟁배상금을 상환하게 하고, 전쟁피해 복구를 위한 자금으로 이용되었으나 1929년의 대공황으로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2차 대전을 맞게 됨.

- 일본의 약진 : 영국의 극동지역에 대한 지배권이 약화되자 영국을 대신하여 신흥일본의 군국세력이 이 지역시장에 대한 지배권을 점차로 강화할 수 있었음
- 영토적 세력을 확장을 꿈꾸던 일본은 미국의 달러외교와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하여 태평양전쟁의 원인이 됨

2차대전

- 1차 대전 종전 후 20년 만에 나치 독일군이 1939년 9월 1일에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시작. 그러나 2차 대전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음.
- 왜냐하면 파리평화회의는 강대국들의 뿌리깊은 적대감을 해소시킬 근본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차대전이 끝났어도 전쟁의 원인이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
- 이러한 관점에서 1-2차 대전은 하나의 전쟁 즉 30년 전쟁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 1918년 독일이 전쟁에 패배했을 때, 대부분의 독일국민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음.
- 왜냐하면 독일국민은 그들의 영토 안에서 적국의 군대를 본 일이 없었기 때문.
- 따라서 전선의 군대는 잘 싸웠지만 내부의 적(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 유태인과 같은 반전세력)들 때문에 지게 되었다고 믿는 국민들이 많았음

- 즉 전선의 독일군이 이러한 반역자들에 의해 “등뒤에서 칼로 찔렸다”고 생각한 것
- 따라서 이러한 반역자들에 의해 서명된 굴욕적인 베르사유 조약은 언젠가는 폐기되어야 할 것이었고, 빼앗긴 영토와 제한된 주권이 언젠가는 회복되어야 할 것이었으며 그것은 전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였음
- 독일은 1차 대전 종전 후 꾸준히 군대를 증강하고 탱크나 비행기 같은 무기를 소련영토에서 비밀리에 제작하고 조종사를 훈련시킴
- 히틀러는 스탈린에게 독소불가침조약을 체결을 요구하면서 폴란드를 공격할 때 소련이 중립을 지켜주는 대가로 폴란드 영토 절반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으며 소련은 이를 받아들임
- 그 결과 독일은 1차 대전처럼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한다는 양면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됨.(소련은 프랑스에 대해서 19세기 초 나폴레옹의 군대 침입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음)

대전 후 자유화를 위한 제도 구축기(1945-1958) (1)

- 1차 대전 후 미국주도 세계경제는 1929년의 대공황으로 인해 그 동안 영국이 이룩한 자본주의 세계경제구조를 완전히 붕괴시킴.
- 따라서 각국은 국내경제의 안정에 최우선의 경제목표를 두고 경쟁적으로 관세장벽을 높이고 수량제한을 강화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전세계는 이른바 무역전쟁에 휘말리게 됨
- 이와 더불어 미국이 1933년 금본위제도에서 이탈하게 되자 각국의 통화불안과 국제결제상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국제경제질서는 극도로 혼란에 빠졌으며 세계무역은 극도로 위축되어 결국 2차 대전 발발의 한 요인을 제공

- 2차 대전에서 서서히 연합국의 승리가 굳어져 감에 따라 이들은 국제경제질서의 회복을 위한 협의를 시작
- 이른바 자유무역의 확대와 세계의 고용, 생산 및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전쟁이 끝남과 때를 같이하여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국제통화제도를 이끌어 갈 국제경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

대전 후 자유화를 위한 제도 구축기(1945-1958) (1)

- 이러한 노력이 최초로 결실을 맺은 것이 IMF와 IBRD의 창설. 1945년부터 업무를 개시
- 한편 국제무역의 측면에서 창설하고자 하였던 국제무역기구(ITO)는 결실을 보지 못함.
- 그 이유는 ITO헌장이 관세 및 비관세 무역제한에 대한 과도한 규칙의 적용에 따라 각국의 정치, 경제적 이해가 대립되어 합의가 어려웠으며, 특히 주도국이었던 미국마저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되자 좌절
- 다만 각국 정부는 헌장과는 별도로 세계교역의 확대를 위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경감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1948년에 빛을 보게 된 것이 GATT
- GATT는 그 명칭이 보여주듯이 하나의 경제기구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 있어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로서 IMF와 함께 전후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

전통적 보호주의와 신보호주의 차이점

구분	보호무역주의	신보호무역주의
실시국가	주로 후진국	주로 선진국
보호목적	자국의 유치산업 보호	사양산업, 첨단산업 및 기술집약적 산업의 보호
보호수단	관세장벽	비관세장벽
협상과정`	다자간 협상방식	쌍무적 협상방식
보복조치	제한적 효과만 발생	강력한 보복조치 시행
시장개방압력대상	상품시장	상품시장 + 금융, 서비스, 무역, 유통시장 등
적용대상국	모든 국가	특정국가

국제통상질서

1. 개요

국제통상질서는 개별국가, 지역경제 그리고 세계경제의 이익과 상호 충돌하고 조화되면서 형성된다. 이에 따라 국제통상질서도

- 1)국제주의 또는 다자주의
- 2)지역주의
- 3)쌍무주의의 기초 위에서 형성된다.

국제주의, 다자주의(범세계주의)

(1) 개념

- 대공황과 제1차 대전을 거친 1940년대 후반 세계는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분위기 속에서 각종 노력이 이어졌으며, 그러한 경제협력은 크게 “범세계주의”와 “지역주의”라는 상호 모순되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국제주의란?

- 국제주의는 “모든 국가들의 참여 속에 이해관계가 반영된 국제무역 규칙을 제정하고 그 틀 안에서 실행되는 범세계적 자유무역만이 세계전체 자원의 최적분배를 가져오고 인류전체의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논리 하에서 세계경제를 하나의 경제규범 하에 두려는 시도를 말함.
- ” 즉 세계전체를 하나의 경제질서 또는 규범 하에 두려는 목적 하에서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협상하거나 규칙을 제정하려는 경향을 말함
- 국제주의적 질서는 주로 정부나 국제기구에 의해 국가간 관계와 관련된 경험적 사실과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지며, 그 목표는 교역장벽(관세, 비관세)의 철폐나 완화를 통한 무역자유화에 두고 있음. 대표적인 예가 GATT와 WTO, UNCTAD, WCD, IMF를 들 수 있다.

지역주의(regionalism)란?

- 지역주의란 국가간 경제관계의 장벽을 철폐하는데 있어 지역적 인접성, 공통된 역사, 문화적 배경, 경제적 친밀도 등에서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끼리 자유, 무차별 원칙을 국지적으로 적용하려는 흐름
- 전세계 국가들 간의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실현하려는 WTO의 다자간주의 내지는 국제주의에 대비되는 개념. EU, NAFTA, APEC 등
-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으며, 아직 통일된 견해는 없음

첫째, 양자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다.

둘째, 지역주의는 범 세계주의로 이행하는 중간단계다.

셋째, 양자는 동일한 시기에 병렬적으로 나타나는 서로 상이한 경향이다.

(2) 국제주의의 배경

- 2차 대전 직후 세계는 전전의 경제 불럭화의 경험, 근린공핍화정책 즉 보호무역 내지 차별무역에 대한 반성으로 자유, 호혜, 무차별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무역질서의 수립을 추구
-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GATT. GATT는 세계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화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탄생. 그 결과 1950년대에 세계경제는 선진공업국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
- 근린공핍화 정책이란?
- 자국의 실업을 무역을 통하여 타국에 전가시키는 정책.
- 정부가 무역정책을 통해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제한하려고 하는 정부의 간섭은 자국의 생산 및 고용수준을 향상시킴. 그런데 일국이 이러한 정책을 통해 실업을 감소하려고 하는 노력은 결국 다른 실업을 다른 나라에 전가하는 것이 되며,
- 이러한 실업을 전가 받은 나라에서는 또 다시 다른 나라에게 실업을 전가하려는 조치를 취하게 되어 실업의 순차적 전가현상이 이어져 사태를 해결하기 곤란하게 됨
- 이러한 전가는 외국무역의 축소를 가져와 실업의 증가를 초래. 양차대전간의 환절하경쟁이나, 수입제한강화의 쓰라린 경험은 근린공핍화정책의 폐해를 배제할 목적으로 GATT나 IMF 등의 국제협력의 장을 마련한 것임

(3) 국제주의의 특성

국제주의 원칙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첫째는 불가분성 :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 수준이 높아 국가들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을 때 국제주의 원칙이 보다 잘 수용됨

둘째는 포괄적 호혜성 : 국가들 사이에는 경제발전단계, 문화적, 사회적 차이가 존재함.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있음을 상호 인정하고 협상에 있어서 각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동일한 대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전세계적 균형을 기준으로 한 양보와 타협이 필요.

- 만약 국가들이 자국의 힘을 바탕으로 한 일방적인 이익 추구에만 나선다면 국제주의는 존재할 수 없으며 이는 전전의 식민주의나 제국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하여 갈등과 분쟁의 회오리바람 속에서 혼란을 야기할 것
- 오늘날 국제사회는 카오스의 이론과 같이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어 일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음(환경, 인구, 식량)

지역주의의 확산 배경

- 전후 국제주의적 노력이 진행되는 한편 구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자본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해 서유럽국가들과의 협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음
- 이에 마셜플랜(marshall plan)이라는 서유럽재건을 위한 경제지원을 하게 되었음
- 한편 영국과 프랑스 등 전전의 식민종주국들은 해외 식민지의 상실과 미국과 소련의 부상으로 국제지위상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 이런 상황에서 전후 유럽경제 재건을 목적으로 1948년에 설립된 유럽경제협력체(OEEC)가 미국의 지원 하에 탄생. 후일 EU의 밑거름이 됨
- 더욱이 범 세계주의 차원에서 출발한 GATT가 구조적으로 다양한 국가의 욕구들을 수용하지 못했으며, 또한 단기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지 지역주의 경향이 더욱 가속됨
- 또한 GATT 설립 당시 현실적 제약 때문에 기존의 지역협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지역주의 확산에 기여함

(4) 지역주의와 국제주의의 관계

첫째, 지역주의는 역외국가들을 불리하게 함으로 역내로의 참여를 유도하게 되며, 지역그룹의 규모가 증대하면 결국 세계적 수준에서의 자유화에 기여하게 됨

둘째, 지역주의는 무역상대국의 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 수단으로 사용됨.

- 특히 미국의 경우 쌍무주의와 지역주의를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과 병행시켜 추구함으로써 협상타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 즉 다자적 협상을 통해 시장개방을 하든지 아니면 차별적 무역정책의 대상이 되어 손해를 보든지 하라는 식의 압력 수단으로 이용

4. 쌍무주의

(1) 의의

- 쌍무주의는 국제통상과 관련한 문제를 당사국간에 협상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상호주의와 표리의 관계
- 상호주의를 국제무역상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요구하는 포괄적 원리로 본다면, 쌍무주의는 무역문제 해결방식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쌍무주의는 협상교섭력이 강한 나라로서는 일방적 강요를 통해 용이하게 협상목적 달성할 수 있으며, 대등한 국가끼리의 경우에도 상호주의에 의해 자국의 이익을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음

(2) 쌍무주의의 배경과 논리

- EU의 성립(지역그룹의 속출)을 배경으로 나타난 쌍무주의는 주로 강대국이 악용해 왔으며, 그 구체적 수단으로는 수출자율규제(VER), 시장질서유지협정(OMA) 등의 쌍무협정과 반덤핑, 상계관세부과와 같은 수입규제, 쌍무적 시장개방압력 등으로 나타남
- 쌍무주의는 다자주의와 독자주의의 중간위치에 있으나 독자주의 성격이 더 강함.
- 한편으로 쌍무주의는 다자주의적 협상의 타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압력수단으로도 이용되어 왔음.

(3) 자유무역과의 관계

- 쌍무주의가 무역자유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거
첫째, 다자적 질서가 붕괴될 경우 무제한적인 쌍무협상을 통해 무역자유화 촉진 가능. 모든 국가가 만족하는 국제적 협상의 도출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
둘째, 다자주의의 비차별 원칙에 의한 무임승차의 심화문제를 규율할 수 있음
셋째, 비협조적 국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현실적으로 쌍무주의는 무역자유화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무역을 제한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음
- 따라서 시장개방을 체계적 수준에서 자유로운 질서 형성을 위해서는 WTO와 같은 다자적 무역체계가 필요. 다자적 제도에 기초하지 않은 무제한적인 쌍무협정이나 지역주의는 무역자유화를 저해할 수도 있음
- UR협상의 타결은 쌍무주의와 지역주의의 폐해를 줄이고 다자적 질서의 강화를 이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즉 쌍무주의와 지역주의가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방향이 아니라 보완적인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는 기틀을 제공

(1) 공정무역론

국제통상의 확산은 국가간 상호의존성과 국제경쟁을 심화시켜 정부의 무역에 대한 지원과 개입이 강화되고 있음. 그런데 한 나라의 경제상황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공정무역의 필요성이 대두

- 공정무역론은 무차별원칙과 상호주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주장되고 있음

첫째로 불공정무역의 대표적인 사례인 덤핑과 보조금 등은 국내의 시장가격과 수출가격을 왜곡시킴으로써 수출국과 수입국의 시장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무차별원칙 위반)

둘째로 상호주의원칙은 관세, 수량제한 등의 무역장벽이 상호 호혜적으로 철폐되고 있으며 교역상대국의 반덤핑, 수출보조금 등에 대해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로 맞대응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서 나타나 있음

- 공정무역론은 GATT와 WTO협정 전문에서 상호주의를 천명함으로써 기본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주의와 함께 WTO체제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으며, 실제로 다자간무역협상 뿐만 아니라 지역협정 및 양국간 통상교섭과정에서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
- 자유무역론이 자유경쟁을 통하여 세계전체적인 부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비해 공정무역론은 통상당사자들이 이익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는데 차이가 있음
- 공정무역론은 개도국의 무역기회보장이나 개도국의 통상압력의 근거로 제공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

(2) 공정무역과 보호주의의 비교

자유무역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첫째, 필요성

- 보호주의: 국내적 요인에서 찾음(시장의 실패, 시장의 왜곡, 특혜 등)
- 공정무역: 한 나라의 경제행위에 대한 대외적인 효과에서 찾음(수출보조금, 국제경쟁체제의 역기능)

둘째, 국제교역의 역효과에 대한 대응

- 보호주의: 다자적 협력을 바탕으로
- 공정무역: 개별국의 일방적 대응-자유무역에 대한 커다란 도전

셋째, 주창자

- 보호주의: 주로 개도국에서 (신 보호주의는 선진국)
- 공정무역: 선진국에서 주장

(3) 공정무역과 상호주의의 관계

- 상호주의란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자기의 행동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이른바 “조건부적 성격”과 “상호간의 교환 관계”에서 “대체적인 등가성”의 확보를 본질적인 특성으로 하고 있으며 불균형을 유지하거나 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보복이 취해짐
- 이 개념은 GATT체제의 기본이념의 하나. 이는 상호 무역상의 양허를 인정하여 무역을 확대하려는 의도였음.
- 그러나 신 상호주의는 다른 나라에 대한 불공정무역관행 내지 제한적 무역관행에 대하여 보복하는 조치와 연결되어 있음
- 상호주의는 국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한 준칙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국제간에는 힘의 논리가 개입될 여지가 많음

(4) 미국의 공정무역에 대한 개념

- 미국의 공정무역론은 진정한 자유무역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 상호 공정한 경쟁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기조로 하면서 상호주의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해석에 근거.
- 미국은 아직 국제적 합의가 없는 상호주의와 불공정 무역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이를 교역 상대국에 대한 통상압력 수단으로 활용
- 즉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것과 같은 수준의 시장접근 및 투자기회를 상대국에게 요구하는 것

- 미국의 공정무역론은 다음과 같은 일방적인 공격성을 가진다.

1) 상호주의의 추구목표*

- 전통적 상호주의: 일정한 시점에서 각국이 미래를 위해 상호 양보하고 그 양보가 전반적인 수준에서의 균형을 추구.
- 공격적 상호주의: 과거에 교환된 양보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향후에는 상대방이 일방적인 양보를 확대함으로써 상호의 대등성을 확보하려는 것

2) 대등성 평가의 주체

- 전통적 상호주의: 모든 협정국
- 공격적 상호주의: 양보를 요구하는 국가의 일방적 판단

3) 표면적으로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오히려 보호무역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

- 미국은 미국의 수입장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수입장벽을 낮추어 세계무역을 확대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 모든 국가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인 차별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무시되고 있다. 예컨대 경쟁력이 상이한 두 나라간의 무역조치가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정의 개념에 맞지 않는다. 특히 미국의 상호주의는 전면적 상호주의라기 보다는 분야별 산업주의로서 미국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철단, 농업 등)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어 그 저의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 힘의 논리가 작용하여 개방압력국에는 유리한 반면 상대국에는 불리한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개방압력국은 선진국이며 이들은 우월적 협상력과 일방적인 보복을 무기로 하여 상대국으로 하여금 불리한 조건을 수락하게 한다.(미 통상법 301조)

(5) WTO협정과 공정무역론

- WTO는 “더욱 자유롭고 더욱 공정한 무역”을 추구하려는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을 의미하며, GATT체제에 비하여 훨씬 발전된 공정무역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 엄정한 분쟁해결 절차의 확립과 엄격한 회원국들의 무역정책 검토제도를 실시하여 공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 예컨대 덤핑, 보조금지급, 세이프가드, 통관절차의 지연 등 GATT에서 엄격하게 분류하지 못했던 조치들을 WTO체제 하에서는 공정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6)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의 관계

- 완전한 자유무역은 불가능하며 다만 보다 자유로운 무역이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정무역은 자유무역과 대립이 아닌 보완관계로 수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정무역은 공정한 시장분배가 아닌 균등한 경쟁기회의 보장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공정성의 판단은 산업별 실정에 근거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무역행위의 공정성 자체에 두어야 한다.
- 산업별 접근은 경쟁력이 없는 산업의 과도한 보호를 통해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기회주의적 보호주의로 남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
- 결론적으로 국제통상이념은 국제교역질서를 왜곡하는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을 통한 상호 번영을 누리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하며, 선진국 중심의 상황논리나 힘의 논리에 의해 운용되지 않아야 한다.